

서민 가계부채 해결 실마리 찾는다

전주시·주빌리은행, 금융복지 컨퍼런스 개최... 전국 금융복지상담소 역할·개선방안 논의

#지난 2007년 열집의 방화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보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A씨는 아내마저 병상에 눕게 되면서 병원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카드부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카드빚을 갚기 위해 인력회사의 문도 두드려봤지만 고령의 나이의 A씨를 선택 받아준 일자리는 쉽게 생기지 않았다.

우연히 지난해 전주시도시혁신센터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한 그는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를 알게 됐고, 상담소를 통해 파산 및 면책 상담을 받고 노령연금과 주거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난달 31일에는 채무에 대한 면책도 받게 되면서 10년간 이어져온 빛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이 같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의 금융복지상담 사례는 전주시와 주빌리

은행(은행장 유종일)이 23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개최한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를 통해 전국에 소개됐다. 이번 컨퍼런스는 전국 각지의 금융복지상담소 운영 및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가계부채 상담기구로서 금융복지상담소의 역할과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제윤경 국회의원, 유종일 주빌리은행장, 용규광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장을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소 소장과 상담사들, 금융위 관계자, 금융복지상담소 설립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A씨는 이날 사례발표에서 "최근 면책까지 받게 되면서 마음의 부채를 덜 수 있게 되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번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라며 "저에게 평안을 주신 김승수 전주시장과 노송중 주민센터 담당자, 전주

시 금융복지상담소의 모든 직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먼저 유종일 주빌리은행장이 "불링주빌리, 빚탕감 운동의 의미,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한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진 주빌리은행의 빚탕감운동의 의미와 성과, 정부의 빚탕감 정책,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강의했다.

이어, 국내정책 세션에서는 허주식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장이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을 주제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빚탕감 정책에 대해서 강연했다. 두 번째 세션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 등 전주시와 광주, 광주광역시, 서울 은평구, 성남시, 서울시, 경기도 전국 7개 금융복지상담센터장들이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복지상담소의 설립 운영 사례와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또한, (사)한국사회

책임협동조합 소비자정책연구소 진정란 연구원이 가계부채 상담기구로서 상담센터의 역할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전체 참여자들이 참여해 바람직한 금융복지상담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종합토론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제윤경 국회의원은 "여러 종류의 채권채무 관계이든 채무자와 채권자가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상식적인 금융환경이 자리 잡을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며, 금융복지상담소가 전국에 공적 가계부채 상담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빚은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결코 삶의 존엄을 포기하면서까지 갚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빚 때문에 자살을 하는 뉴스가 끊이지 않는 지금, 가계부채는 이제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하고 함께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근 기자

'익산 오투 그랜드시티' 모델하우스 오픈

12월 1일 선보여... 자연 친화적 단지배치 · 4BAY 판상형 평면 구성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서울 및 수도권 등의 주요 지역에 대한 청약제도와 판매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되었고, 이러한 규제에 비교적 자유로운 지방 중·소도시에서의 신규분양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최근 신규 아파트 공급이 매우 부족했던 전북 익산에서 지역 향토기업인 제일건설(대표이사 윤여용)이 '익산 오투 그랜드 시티'를 오는 12월 1일, 모델하우스 오픈을 앞두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오투 그랜드 시티는 기존 익산 지역에만 약 1만여 세대를 공급한 제일건설의 아파트 브랜드인 오투그랜드가 익산 어양동, 동산동, 금마면, 세 곳에서 순차적으로 분양을 준비하면서 기존 오투그랜드의 장점에도 새로운 시도를 더한 상품으로 자연 친화적인 단지배치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4BAY 판상형 평면구성, 주상 대형장 설계로 인한 개방감은 물론, 다목적 펜트리와 넓은 보조주방 등을 통한 공간의 다양성까지 갖춘 주부들을 위한 특화설계를 선보일 예정이다.

84㎡ 단독타입의 총 155세대로 구성된 어양차 오투그랜드는 단지 바로 옆 부송공원이 위치한 익산 내 주거선호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어양초 · 어양중 · 영등중 등 최우수 학교는 물론, 홈플러스 · 롯데마트 등 주요 상업시설이 단지와 인접해

생활편의환경이 매우 우수하다.

지난 10여년간 신규 아파트 공급이 없었던 익산 남부권 중심에 들어설 동산동 오투그랜드는 84㎡ 단독타입의 총 301세대로 구성되었으며, KTX와 SRT 익산역, 고속버스터미널이 위치해 있어 교통이 편리한 것은 물론, 제1·2국가산업단지가 위치하여 배후수요가 풍부할 뿐 아니라 남부권 개발계획에 따른 미래가치가 우수하다.

익산시 금마면에 선보이게 될 미려한 더 테라스 오투그랜드는 82㎡와 84㎡ 타입의 총 134세대로 구성된 전북 최초 테라스 하우스로써, 전세대 테라스 설계로 테라스의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며, 주변 서동공원과 금마저지 등이 위치한 힐링라이프 공간으로 꾸며진다.

익산=정양원 기자

빛으로 빛 잃은 서민 대상 '부실채권' 소각

전주시, 종교계 후원 시민 40명 빛더미에서 해방시키는 부실채권 소각행사 가져

전주시가 종교단체의 후원금으로 사들인 부실채권을 소각하면서, 빛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던 전주시민 40명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됐다.

23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2017 금융복지 컨퍼런스'에서는 김승수 전주시장과 제윤경 국회의원, 유종일 주빌리은행 대표, 임용택 전북은행장, 오성택 전주시기독교연합회장과 김진태 전주고 전주고교장, 성우 대한불교 조계종 금산사 주지스님, 김해봉 원불교 전북교구장 등이 참여하는 부실채권 소각식 행사가 진행됐다.

이날 소각식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5년 이상된 장기 부실채권을 저가로 매입해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경제활동에 복귀시켜 자활의 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으로, 전주시민 40명이 빛의 굴레와 악성 채권추심으로부터 해방되고, 부실채권 소각은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가 전주시기독교연합회와 천주교 전주교구, 대한불교 조계종

금산사, 원불교 전북교구 등 종교단체가 후원한 1000만원의 기금을 이용해 금융권이 전북은행의 도움을 받아 총 5억8000여 만원(원금 2억4000만원, 이자 3억3000만원) 규모의 채권을 매입하면서 가능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 문을 연 전주시 금융복지상담소는 지난해 12월에도 부실채권 소각식을 통해 이차포함 8억4600만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소각, 전주시민 46명을 빛의 굴레와 악성 채권추심으로부터 해방시키기도 했다.

시와 전주시금융복지상담소는 부실채권을 매입해 소각하는 일 외에도 과도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시민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 금융복지상담, 금융교육 등도 지원하는 등 서민들에게 금융부채를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개소 이후 현재까지 △1,479건의 상담실적 △50여명에 대한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 △100만원 이하 소액 채무자 12명의 채무에 대한 완전탕감 △협상에 의한



전주 서민 빛 탕감 부실채권 소각

일시 2017. 11. 23.(목) 장소 국립무형유산원 어울마루 3층 국제회의장 주최 주관 전주광역시, 전북은행, 원불교, 금산사

전주시가 종교단체의 후원금으로 사들인 부실채권을 소각하면서, 빛의 구렁텅이에서 허덕이던 전주시민 40명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갖게 됐다.

채무조정을 통해 17명의 채무액 3억여원을 5,000만원으로 감면 등의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 관계자는 "시민들을 지나친 추심의 압박과 경제적 궁핍으로부터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종교단체와 시민단

체, 지역금융권이 함께 힘을 합쳐 마련한 이번 부실채권 소각행사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모든 시민들이 건강한 가계경제를 꾸려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메디앙시스템, 지역 SW 산업 발전 공로 장관상 수상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입주기업인 메디앙시스템이 지역 SW(소프트웨어)산업 발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23일 진흥원에 따르면 메디앙시스템은 전남 서울에서 열린 '2017 지역SW사업 종합성과보고회'에서 진행된 지역SW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보고회에서는 지역 SW산업 진흥지원 과제 우수사례 발표와 전시, 2018년 지역 ICT사업의 주요정책 현황 및 방향 등이 발표됐다.

메디앙시스템은 지난 2010년 11월 의료 ICT산업으로 창업 후 지속적인 변화와 도전을 통해 전북지역의 특색을 살려 농생명 분야로 전환, 국내최

초로 '로컬푸드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이후 전북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보급형 스마트팜 시스템을 2년간 개발한 끝에 은실통합관리제어 시스템인 '네오팜'을 개발해 다양한 시장개척에 도전하고 있다.

아울러 2013년 이래 꾸준한 매출 향상을 통해 지역 SW산업의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주국제영화제와 지역 대학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힘써왔다.

박기선 메디앙시스템 대표는 "이런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다"며 "지역 SW산업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영역에서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옆**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